

민·관 복지정보 공유 기반 전국망 구축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 수요자·현장 중심 복지전달체계 강화

보건·복지 원스톱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민·관이 복지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망이 구축됐다.

네트워크 구축은 민·관 협력을 통해 수요자·현장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가 대상·사업별로 따로 관리

돼 복지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에게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읍면동 및 복지관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3개동(아라·노형·동홍동)과 복지관에 사례관리사를 배치해 민·관 협력을 통한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민·관이 각각 이용하는 복지시스템의 대상자 복지 정보 공유를

통해 공공-민간의 복지 데이터 통합을 비롯 ▷지역 내 복지자원 관리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통합서비스 및 돌봄계획 수립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특히 보건복지부와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와 연계를 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관 정보 공유를 위한 복지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상자 정보, 자원 공유 등 복지시스템상의 대분류 4개, 중분류 14개의 기능이 개선돼 지난 1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범

운영되는 복지시스템 플랫폼 기반도 마련했다.

도는 민·관 서비스 상호 의뢰 및 자원 연계를 제공할 수 있는 민관협력 복지 정보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민·관이 서로 복지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과 수요자 중심 운영을 통해 의 민·관 협력 원스톱(통합) 서비스인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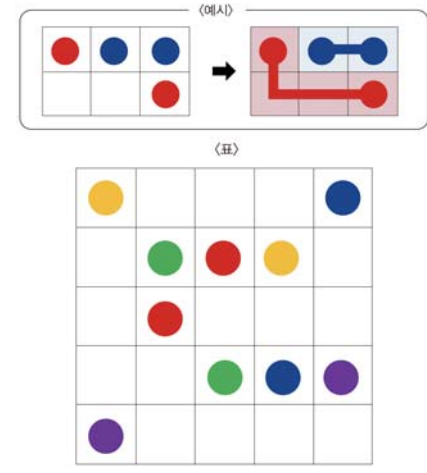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 정보 공유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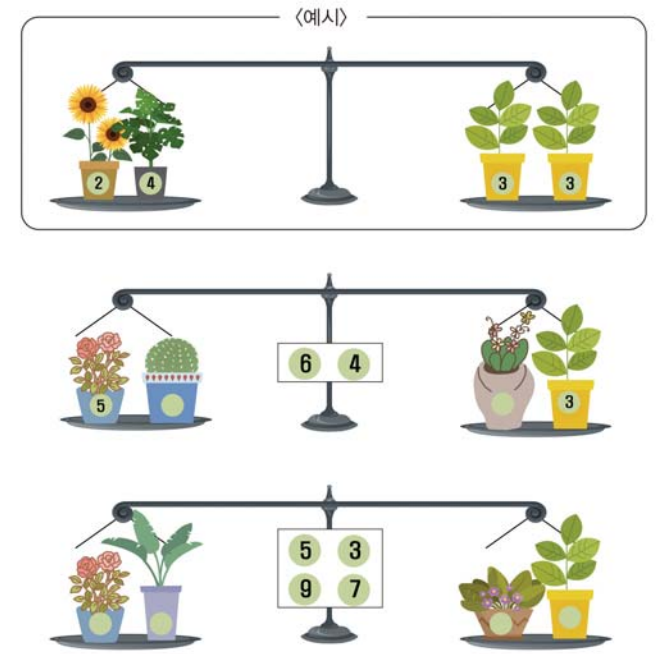
치매예방 주간학습지 **노퍽!** <174>

한라일보·제주도 광역치매센터 공동 기획

문제 1. <예시>와 같이 <표> 안에 있는 같은 색상의 원끼리 겹치지 않게 연결하면서 칸을 색칠해 표의 모든 칸을 채워보세요.



문제 2. 아래 그림의 예시와 같이 오른쪽과 왼쪽 화분의 값이 같을 수 있도록 알맞은 숫자를 찾아 적어보세요.



문제 3. 왼쪽 사자성어와 관련된 동물을 찾아 연결해보세요.

- 천고마비 •
- 용호상박 •
- 토사구팽 •
- 오비이락 •
- 학수고대 •

학습지 정답은 13면 한라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9일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구직자 특화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제주도 제공

구직자 특화형 고용서비스 제공한다

도·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협약 상담·훈련·사후관리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9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도내 취약계층 중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구직자 특화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 양 기관은 취약계층 발굴·모집을 위한 홍보, 지역 내 적합한 일자리 알선 등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프로그램, 특화 직업훈련, 재일여성 인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장 적응과 고용유지를 위한 개인별 사후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구직난을 겪는 도내 취업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찾고 생계 걱정을 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유병 장수시대' 고령층 보험상품 출시 활발

고지항목 간소화로 가입 수월 치매·루게릭병 등 집중 보장도 '청·장년기부터 의료비 대비를'

'유병 장수' 시대를 맞아 고령층 수요에 맞춘 보험상품 출시가 활발한 추세이다.

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생보업계는 질병이 있는 고령 가입자도 까다로운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형' 보험과 치매, 파킨슨병 등 퇴행성 질환 보장에 특화된 보험 출시에 적극적이다.

간편심사형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항목을 최소화한 상품이다. 초기에 '질문 3개 보험' 형식으로 출시됐고 최근에는 질문 수가 1개로 줄며 더 간단해졌다.

ABL생명의 (무)ABL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은 최고 80세 고령자와 유병자도 질문 1개에 대한 답변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치매와 루게릭병 등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거나 '고령층 전용'을 표방한 '시니어 보험'도 늘고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무배당 6180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하는 고령층 전

용 암보험이다. 보장 연령은 100세까지다.

삼성생명의 삼성간편종합보장보험1.0은 최고 80세까지 세 가지 고지항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재해사망,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에 더해 루게릭병, 특정 파킨슨병, 대상포진, 인공관절치환술 등 '시니어 7대 보장'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다.

퇴행성 질환 가운데 치매는 진단에 따른 보험금, 간병자금, 월 생활자금 등 필요자금을 종류별로 보장하고 보험금을 높이는 추세다.

한화생명의 노후안심치매보험(무)은 중증치매에 간병자금 보장을

로 최대 2억74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미래에셋생명치매보험든든한노후는 특약을 활용하면 중증 치매 진단에 만기와 무관하게 생존기간 매달 생활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고, 뇌출혈이나 류머티즘관절염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질병에도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한다.

생명보험협회는 "고령 부부 2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227만원(통계청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인데 연평균 진료비로 982만원(건강보험통계연보 2019)이나 들어 의료비가 경제적 빈곤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의료비로 인한 노후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청·장년기부터 노후 의료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전 품목 전기안전인증
전 품목 IP54 방진방수인증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